

통계에 나타난 북한

자연과학대학 김 호 징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 ‘민주화’ 등의 단어를 여러 뜻으로 쓰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민주공화국’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이고, 북한의 김일성-김정일의 60년간 부자세습의 나라의 국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이며, PD 계열 학생운동권 출신 정치가들이 표방하는 PD, 즉 People’s Democracy는 번역하면 역시 인민민주주의이다. 그렇다면 세계인의 통념으로서의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분석하는 Economist Intelligence Unit라는 비정부기관은 2007년에 여러 나라의 상대적 민주주의 상태를 같은 잣대로 계량화해서 민주주의지표(Index of Democracy)를 발표하였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1.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公正)한가(electoral process & pluralism)
2.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가(civil liberties)
3. 정부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가(the functioning of government)
4. 시민의 정치 참여도는 어떤가(political participation)
5. 정치문화는 어떤가(political culture)

라는 5종의 현상을 판단 기준으로 하고 이들을 각각 10점 만점으로 계량화 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평균해서 얻은 점수로서 조사대상 167개국들의 순위를 발표하였다. 그의 일부를 표 1에 발취 전재하였다.

선진 7개국(G7)인 미국 영국 프랑스 케나다 독일 이태리 일본 들은 이태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25위 안에 든다. 이태리는 34위로서 31위인 한국보다 하위에

표 1. 민주주의 지표(Index of Democracy), 2006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이태리	일본	한국	북한	미얀마	짐바브웨	중국
점수	8.22	8.08	8.07	9.07	8.82	7.73	8.15	7.88	1.03	1.77	2.62	2.97
세계 순위	17	23	24	9	13	34	20	31	167	163	147	138

조사대상국 총수: 167

있다. 북한은 세계에서 최하위인 167위를 차지하여, 군사독재정권의 미얀마나 아프리카의 독재국가 짐바브웨(zimbabwe)보다도 하위에 있다. 즉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세계 제일의 독재국가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김대중 선생은 2000년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노벨평화상을 받으면서 수상연설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절대적 가치이며 또한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정의의 구현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민주주의의 바탕 없이 시장경제는 꽃피울 수 없으며, 시장경제의 기초 없이 경제적 경쟁력이나 성장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기초가 없는 국가 경제는 모래 위의 성(城)입니다.”

김대중 선생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인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의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통계가 뜻하는 민주주의와 같은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대한민국은 주권재민(主權在民), 인권보장(人權保障), 법치(法治)와 권력분립(權力分立)을 국기(國基)로 하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되어 있고,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 한다”로 되어 있다.

그런데 김대중 선생은,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 땅을 차지하고 있는 (헌법상) 불법단체인, 세계제일의 독재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억 달러의 돈을 들고 찾아가서 김정일을 맞았다. 그리고는 “역사적 남북정상 회담”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헌법 제4조의 정신에 따라서, 김정일에게 부자세습 60년의 독재 권력을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종용(慫恿)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통일의 중간단계로서, 세계제일의 독재체제와 대한민국을 섞어서 2체제-

2정부 연방(聯邦)국가를 만들자고 했다. 그리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힘을 합치자고 했다. 김정일은 그 후 원자탄을 만들었으며, 동해에 미사일을 실험발사하였다. 선군정책으로 10만의 후방침투용 특수부대를 포함해서 110만의 군대를 휴전선(休戰線)에 전진배치 한지 오래이다.

일단 연방국가가 되면 UN군의 한반도 주둔 명분이 없어지고, 남북의 무력분쟁은 국내문제가 되어 UN이나 우방국이 간섭할 수 없다. 6·25 직전보다 더 위협스러운 상황이 재현(再現)된다. 결국 김정일은 선친인 김일성의 유지(遺志)에 따라서, 우세한 군사력으로 5,000만의 백성이 주인인 나라를 선제공격으로 쉽게 유린할 것이다. “군대에서 썩고 있다”고 생각하는 병사에 전의(戰意)가 있을 이 없다. 대인지뢰와 대전차장애물은 제거되었으며 해안선의 철조망은 제거되었으며, 도로들은 넓고 잘 포장되어 있다. 휴전선 근처에 있던 미군은 평택으로 후퇴했다.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모래 위의 성(城)인 독재국가의 경제”에 검증 없이 남한사람의 세금을 퍼주고 있다. 쌀은 군량미의 축적에 기여하고, 질소비료는 포탄의 폭약으로 변조할 수 있다. 김정일의 원자탄은 미국으로 하여금 한반도에서 ‘중전선언’을 하고 군대를 철수시키는데 지렛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학자인 R.J. Rummel에 의하면 독재정권은 정치적 살인(democide), 전쟁, 대량아사(餓死)를 초래하는 특성이 있다고 한다. 김일성은 두망강 너머의 외세(外勢)인 소련의 후원으로, T-34 탱크, 야크 전투기, ‘따발총’으로 무장하고, 소련의 군사고문관 Vasiliev 중장이 작성해준 ‘선제공격작전계획(Premptive Strike Operational Plan)’으로 1950. 6. 25의 일요일 새벽에 남침하였다. 그의 목적은 한반도 인구의 2/3 이상이 살고 있고, 유권자의 95% 이상이 등록하고, 이의 90%가 비밀투표로 보통-평등 선거를 해서 건립한 대한민국, 한반도에 단 하나 있는 합법정부의 나라를 전복시키고, 한반도전체를 자신의 권력 아래 넣으려는 것이었다. 이 전쟁으로, (공신력이 있기로 유명한 대영백과사전에 의하면) 한(韓)민족 200만 명 이상이 죽었다. 그리고 Rummel의 저서 ‘Never Again’의 통계에 의하면, 김일성은 1948~1987년에 정치적 이유에 의한 정권차원의 살인(democide)으로 북한에서 166만 명의 동포가 죽었다고 한다. 1990년 대 후반의 북한의 김정일

표 2. 16개국의 통계지표의 세계 순위(順位)

나라	일인당 GDP	민주주의	인권*	경제자유	언론자유	총체적 자유	삶의 질	인간개발 지수(UN)
미국	6	17	F	4	16	8	5	8
영국	21	23	F	6	31	7	37	18
프랑스	23	24	F	45	39	48	1	16
캐나다	10	9	F	10	22	3	22	6
독일	20	13	F	19	16	21	11	21
이태리	24	34	F	60	61	41	8	17
일본	16	20	F	18	39	35	25	7
대한민국	34	32	F (57)	36	66	37	50	26
북한	157	167	NF(192)	157	195	159	165	자료없음
중국	84	138	NF	119	181	146	116	81
러시아	61	102	NF	120	164	124	116	63
Belarus	81	128	NF	145	186	153	98	67
Cuba	117	124	NF	156	191	157	108	50
Iran	73	139	NF	150	181	147	190	96
Myanmar	155	163	NF	153	191	156	160	130
Zimbabwe	147	147	NF	154	186	151	175	151
조사대상 나라의 수	194	167	192	157	195	159	195	194
	GDP(ppp) per capita	Democracy Index 2006	Freedom in the World	Index of Economic Freedom	Freedom of the Press 2007	State of Liberty 2006	Quality of Life Index 2007	Human Develop- ment Index 2006
참고**	A	B	C	D	E	F	G	H

*F는 Free, PF는 Partly Free, NF는 Not Free를 뜻한다.

북한은 평점이 (7.0; Not Free)이어서 185~192위 군(群)에 속한다. 북한은 이들 중 세목(細目) 점수의 합에 의해서도 최하(最下)위이어서 192위로 정했다.

**아래에 인터넷상의 주소를 기재하다.

A) GDP(ppp) per capita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GDP_%28PPP%29_per_capita

B) Democracy Index 2006

http://www.economist.com/media/pdf/DEMOCRACY_TABLE_2007_v3.pdf

C) Freedom in the World

<http://www.freedomhouse.org/template.cfm?page=15>

D) Index of Economic Freedom

<http://www.heritage.org/research/features/index/countries.cfm>

E) Freedom of the Press 2007

<http://www.freedomhouse.org/uploads/fop/2007/pfcharts.pdf>

http://en.wikipedia.org/wiki/Reporters_Without_Borders

F) The State of World Liberty Project

<http://www.stateofworldliberty.org/report/rankings.html>

G) Quality of Life

<http://www.il-ireland.com/il/qofl07/>

http://www.economist.com/media/pdf/QUALITY_OF_LIFE.pdf

H) List of Countries by Human Development Index,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Human_Development_Index#endnote

치세(治世)에서 북한주민 200만이 굶어서 죽었다고 한다. 원인은 기상조건(한발, 홍수)에 인한 천재(天災)라고 주장하나, 실은 인재(人災)이었다. 인구 1,000명당 약 50명의 현역군인을 유지하면서 선군정책으로 자원이 군사비로 집중투자 되고, 따라서 부족한 식량을 (김정일에 대한 충성도에 의한 계급제도로) 불평등배급을 해서 굶기고, 이동이나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없어서 먹이를 구할 수단이 봉쇄된 여건에서 생긴 대량아사(大量餓死)사태이었다. 결국 김일성-김정일 부자(父子)는 1948~2000년에 500만 이상의 동포를 죽인 셈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북한의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정치범수용소(관리소, gulag)에서는 우리 동포가 매일 죽어가고 있다(<http://www.usip.org/pubs/specialreports/sr990802.html> 참조).

표 2는 선진 7개국(G7), 압록강 두만강 건너의 중국 러시아,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인권-경제적 자유-언론자유-삶의 질-일인당 GDP 등의 세계 순위를 발취한 것이다. 북한은 5개 항목에서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이다.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소멸(消滅)없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기대할 수는 절대로 없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독재자에 유화(宥和)정책은 금물(禁物)'이라는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요사이에는 '우리나라 헌법을 지키라'고 하면 '보수꼴통' 이고, 김일성-김정일 정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드리고, 대한민국 납세자의 세금을 퍼주자는 사람들은 '진보' 라고 한다. 역사 뿐 아니라 '현실' 까지도 왜곡된 세상이다.